

자료제공 : 2023. 12. 8.(금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총무과

서울디자인재단

총무과장	조영창	2133-5605
서무팀장	손인호	2133-5607
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진흥본부장	최구환	2096-0006
디자인브랜드팀장	서혜영	2153-0091
누리 집	<a href="http://www.ddpdesignstore.org">www.ddpdesignstore.org</a>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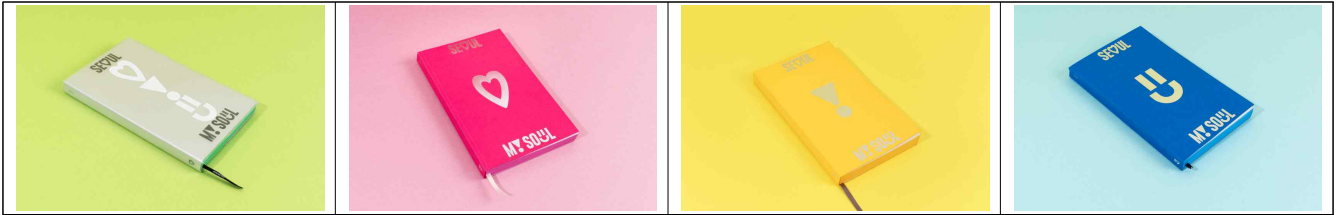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### 서울 매력 담긴 새 굿즈 <서울플래너 2024> 하루 만에 '완판'

- 12.8.(금) 오후 12시 사전예약 시작 하루 만에 1차 물량 500권 전량판매
- 12.26.(화)부터 순차 배송 시작, 추가 제작으로 2차 판매 계획 검토 예정
- '실버' 플래너 가장 인기... SNS서 "예쁘다", "소장각이다" 등 뜨거운 반응
- "서울만의 재미·매력 담겨... 시민과 서울 브랜드·가치 공감하는 기회되길"

- 서울시는 지난 12월 8일(금) 12시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간 서울시의 새로운 다이어리 <서울플래너 2024>가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완판(1차 물량 500권)됐다고 밝혔다.
- <서울플래너 2024>는 기존에 관공서 업무수첩과는 달리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, 서울시의 새 도시 브랜드인 'SEOUL, MY SOUL(서울 마이 소울)' 색상과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해 MZ세대의 관심을 끌었다.

- 〈서울플래너 2024〉는 실버, 핑크, 옐로우, 블루 4종으로 제작됐으며 이 중 ‘실버(은색)’ 색상 플래너가 가장 빠른 속도로 판매됐다. 실버 플래너는 시가 당초 20~30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, 가장 선호하는 색상으로 선택된 바 있어 서울시 직원 용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.



- SNS를 통해 〈서울플래너 2024〉 판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‘디자인 너무 예쁘다’, ‘다이어리 덕후로서 넘나 가지고 싶은 것’, ‘귀엽다’ 등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.
-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에 힘입어 2차 판매 추가 제작도 검토할 예정이다.
- 서울시 조영창 총무과장은 “〈서울플래너 2024〉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어 기쁘다”라며, “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,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〈첨부1〉

## 서울플래너 판매 완료 이미지

